

#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적발”

식약처, 14억 원어치 불법 거래 현장 적발

작년 月판매량 150% 초과 · 5일 이상 보관

“단속반원들이 구매자 가장해 현장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하려는 불법 거래 현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유동업체 A사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다. 이후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 왔다.

A사 관계자는 식약처 단속반원

에 적발되자 마스크를 보관한 창고 문을 잠그고, 일부 직원들은 도주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에서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불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진영 식약처 차장의 일문일답이다.

-적발 상황과 매점매석 기준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광고가 있어서 단속반원이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현장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단속반원이 현장을 적발할 때까지 장소를 이동하면서 실제 구매 의사가 있는지, 현금을 갖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판단했다. 단속반원이 이 과정에 응하면 서 창고까지 이동해 발견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하려는 불법 거래 현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관한 행위다.

-단속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해당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매자를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반원이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적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뉴스

**변희수 하사, 법적 여성 인정**

**“여군 복무 막을 근거 없다”**

‘조국 가족펀드’ 운영사 코링크PE 실소유주 증언 또 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조국 가족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오전 10시 부정거래 혐의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코링크PE에 자본을 댄 주주사의 성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이모씨의 이들이다. 이씨는 중국 유학을 다녀온 직후 아버지의 권유로 2016~2018년까지 코링크PE에서 근무했다.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가 누

구나”는 검찰의 물음에 이씨는 “결재 라인이 이 모 차장, 이상훈 대표, 조범동 총괄대표 순이었다”며 “회식이 있으면 상석에 조 총괄 대표가 앉았기 때문에 조 총괄 대표가 실제 운영자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코링크PE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코링크PE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조씨가 했고, 자금에 대해서도 조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조씨 측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여성 측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씨 측은 여성 부사장인 이모씨가 코링크의 투자회사 중 하나인 아이에프엠(IFM)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조씨와 논의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변희수씨(22)가 병원에서 정식으로 ‘여성’ 임을 인정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전직 군인(하사) 변희수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서 변씨는 법적인 ‘여성’이 됐다.

앞서 변 씨는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 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

뉴스



고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강제 전역 조치됐다. 하지만 변씨는 군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

## ● 단신 ●

목포해경, 선박 계류하다 바다 빠진 60대男 구조

해경이 선박을 선착장에 묶어두려다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을 구조했다.

1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오후 5시19분쯤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앞에서 선박을 계류하다 바다에 빠진 시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서해특구대원이 신고 접수 5분 만에 A씨(66)를 구조했다. A씨는 기습통증과 저체온증을 호소해 목포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나를 무시해?” 술집서 친구 폭행한 30대 조폭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지역 조직폭력배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0시1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39)의 뺨을 때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오른쪽 각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가족 이야기 종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모텔서 불…숨진 투숙객 방에서 유서 발견

10일 오전 1시48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0대 중반의 남성 투숙객 1명이 숨지고, 연기가 피져 42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모텔 1개호실(29㎡)이 전소돼 12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5층 짜리 모텔 건물 3층의 숨진 투숙객이 묵던 방에서 시작됐다.

해당 방에선 착화탄을 피운 흔적과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메모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투숙객이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일론 줄 제조공장서 압축기에 다리 끼여 숨져

10일 오전 10시32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 나일론 줄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A씨(60대 남성)가 압축기기에 다리가 끼여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실을 뽑아내는 작업 도중 갑자기 압축기 계 안으로 다리가 빨려들어가 하반신이 눌리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크루즈선 신종 코로나 60명 추가…모두 13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6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일본 TBS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10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텁승자 60명이 신종코로나 감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이 유람선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후 총 13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후생노동성은 승객과 승무원 등 3700여명 전원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왔다.

##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061)393-3200  
금성미화사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